

## \_어린이 생물도감

: 2026 1 18 7:22



누리장나무 / *Clerodendrum trichotomum* Thunb.

구분	설명
생물분류	식물
속국명	누리장나무속
과국명	마편초과

과명	Verbenaceae
일반특징	<p>요약설명 : 마편초과 낙엽 활엽 관목으로 우리나라의 강원도 및 황해도를 기준으로 한 남쪽 지역 전체에 분포한다. 대만, 중국, 필리핀, 일본에서도 볼 수 있다.</p> <p>분포지역 : 대만, 중국, 필리핀, 일본; 강원도 및 황해도 이남 전체에 분포.</p> <p>형태 : 낙엽 활엽 관목.</p> <p>크기 : 높이 2m.</p> <p>꽃색 : 붉은색</p> <p>개화기 : 8월, 9월</p> <p>잎은 마주나기하며 넓은 달걀형이고 점첨두, 절저 또는 밑부분이 뾰족한 모양이다. 뒷면 맥 위에 털이 있고 희미한 샘이 퍼져 있으며, 가장자리는 빛밋하거나 큰 톱니가 있다. 잎자루에는 털이 있다.</p> <p>은 7월 중순~8월 중순에 하얀색으로 피고, 새 가지 끝에 있는 취산꽃차례에 달린다. 암술과 수술을 모두 갖고 있는 양성꽃이다. 꽃잎 전체는 5개로 갈라진다. 갈라진 조각은 긴 타원 모양이고 하얀색이다. 꽃받침은 붉은빛이 돌고 5개로 깊게 갈라진다.</p> <p>열매는 핵과고 둥근 모양이며 9월 말~10월 중순에 붉은색의 꽃받침에 싸여 있다가 밖으로 드러나며 파란색으로 익는다. 열매가 '브로치'처럼 익어 몹시 아름답다. 밑에서 많은 줄기가 올라와 나무 모양을 이루고 생장이 빠르다.</p> <p>나무껍질은 회색빛이 도는 하얀색이고, 속은 하얀색이며 줄기 전체에서 누린내가 난다. 잎과 줄기에서 누린내가 나기 때문에 누리장나무라고 부른다.</p> <p>산기슭이나 계곡 또는 바닷가에서 자란다. 햇빛이 잘 드는 전석지(암반에서 떨어져 나간 돌로 이루어진 토양)나 바위사이에서 자란다. 물빠짐이 좋고 진흙이 적게 섞인 보드라운 흙이 적합하며, 추위와 대기오염을 견디는 성질이 강하다. 씨앗을 뿌리거나 꺾꽂이하여 번식시킨다.</p> <p>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예송리의 상록수림은 천연기념물 제40호로 지정되어 있다. 이 숲에서 자라는 수종으로는 누리장나무외에도 까마귀쪽나무, 후박나무, 붉가시나무, 종가시나무, 생달나무, 광나무, 돈나무, 젖꼭지나무, 상동나무, 새비나무, 붉나무, 두릅나무, 산초나무, 멀구슬나무, 쥐똥나무, 졸참나무등이 있다.</p>